

# 국어 능력 측정 방안 연구\*

김대행 · 김광해 · 윤여탁\*\*

## I. 국어 능력 측정의 성격

### 1. 국어교육의 본질과 관련하여-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입체적 평가

교육이 바람직한 인간상의 형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인교육(全人敎育)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민주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변화에 대한 창조적 대응력을 배양하며, 교육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학습자의 경험 세계를 중시하는 교육의 방향이 내포되어 있다.

국어교육도 그 궁극적인 목표를 바람직한 인간 형성에 둔다고 할 수 있다. 국어교육은 민주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언어적 반응을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 공동체의 이상과 지향 가치의 내면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변화에 대한 창조적인 대응력을

---

\* 이 논문은 교육종합연구원 지원 연구비에 의해 3인 공동연구로 수행된 것임.

\*\*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배양하기 위해서는 고등 정신기능으로서의 언어능력을 강조함으로써 창조적인 사고력과 정보 처리 능력을 배양, 전인교육과 정서교육을 동시에 도모한다. 또한 교육의 보편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지도 및 평가에 있어서도 학습자의 필요와 적성, 능력에의 적합성과 다양성을 추구한다. 뿐만 아니라 국어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어와 민족의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조적으로 표현하고 감상할 줄 아는 태도 및 습관을 기른다. 끝으로, 학습자의 경험을 중시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으로 타당하며, 합리적인 내용을 설계하고, 학습자의 언어능력 및 정서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구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실제 언어생활을 실천 가능하게 한다.

요컨대, 이러한 국어교육의 이념적 지향을 바탕으로, 국어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한국인으로서 국어로 형상화된(될 수 있는) 텍스트를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여 이해 또는 표현하도록 계발시키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 2. '국어능력'의 본질과 관련하여-독서 체험과 문화 능력의 총체성 중시

교육의 내용이 학문의 개념 원리(지식) 그 자체가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공교육 환경에서 지식은 종종 고립되고 비맥락화된 형태로 제시되며, 그러한 지식은 시험 상황에서는 회상될 수 있지만, 문제 해결 상황에서는 전혀 개발되지 않는 비활성화된 지식이다. Brown은 지식과 도구는 그것을 사용함으로써만 완전하게 이해될 수 있고, 그것들의 사용은 사용자의 세계관에 변화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또한 의미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요인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와 그 사회의 시각이 지식의 사용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교육에서 지식(개념과 원리)의 역할과 가치는 삶에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지식의 적절한 사용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을 앞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개발된 문화와 삶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도구로서의 지식과 기능은 그것이 사용되는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적절히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기된 국어교육의 방향을 바탕으로 '국어능력의 신장'이라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때 국어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내용으로서 '국어능력'이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먼저 언어는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서 의미 구성 및 전달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용으로서의 언어'이다. 즉 국어가 실현되고 국어로서 사고하는 구체적인 상황 없이는 언어능력은 달성될 수 없다. 여기서 구체적인 상황 맥락이란 바로 한국적 맥락이며, 문화가 전수되고 계승되는 우리 삶의 현장이다. 그러므로 '교육'이라는 유목적적인 가치 활동 속에서 다루는 국어는 '한국 문화로서의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필수로 한다.

다른 한편으로, '국어'에는 언어의 공통 속성 위에 민족적 정서와 한국적 사고를 담아 내는 '모어'로서 한국어라는 의미가 내포된다. 즉 국어는 오랜 역사를 거쳐 발전해 온 한국인의 언어이며, 민족의식과 문화를 담아내는 언어이면서, 지금까지도 정서를 표현하며 전통을 계승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를 뜻한다. 그 구체적 실상은 단순히 문법 지식 체계로서의 국어만이 아니라, 현재 국어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일상어와, 한국어로 된, 한국적 문학 작품도 포함한다.

이러한 '국어'의 개념과 관련된 '능력'이란 고등 수준의 사고이며, 문제 해결적이고 가치 판단적인 사고를 전제하는 것으로, 단순한 글자읽기(decoding)나 글자쓰기(transcribing)와 같은 기능(skill)의 숙달이 아니라, 체계적인 사고 과정의 결과이자 체질화된 태도로서 말하고 듣고 읽고 쓸 줄 아는 능력(competence)을 의미한다. 이는 기능의 완전한 숙달을 바탕으로 달성되는 것이며, 기능의 학습을 넘어선 차원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어능력'이란 문화적 맥락 속에 체질화된 능력이며, 역사성과 주체성을 바탕으로 언어 기능의 철저한 통달 위에서 창조적이고 비판적으

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그 내용 요소를 국어적 표현력과 이해력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이해력'과 '표현력'은 지적·정서적 성장을 돕고, 주체적 판단과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사고의 계발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사고력 신장'은 교육 일반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이다. 특히 국어 능력 측정은 언어와 문학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지양하고, 광범위한 문화 현상으로서의 언어 활동을 포괄하며, 그 내용에서 '정치, 경제, 사회, 철학, 역사, 과학, 시사' 등 타학문의 지식을 말하기·듣기·읽기·쓰기 활동의 텍스트(제재)로서 다룰 것이다. 이러한 풍부한 텍스트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고 작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사고력은 국어능력의 근거가 된다.

나아가 바람직한 국어능력이란,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의 언어 활동과 관련된 기능을 절차적 지식으로서만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러한 수준을 넘어 문화적 맥락 속에서 '체질화'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국어능력 신장'의 결과는 표현과 이해의 '내용'으로서 학문적 지식을 갖추고, '형식'으로서 기능에 대한 숙달이 전제되어야만이 도달할 수 있는 상태로써, 결코 단순한 기능의 숙달이 아닌, '체험적'인 것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어교육은 한국인에게 한국어로 된 텍스트로 한국적 상황에서 교육하는 문화의 전수 과정이다. 국어교육은 언어 일반의 공통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아니며, 구미(歐美)에서 들어 온 언어교육의 응용은 더욱 아니다. 국어교육의 상황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역사와 독특한 문화적 배경이라는 역사적·문화적 특수성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국어능력의 신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학습자는 '한국인답게' 말하고 쓰며, '한국적으로' 듣고 쓸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어능력은 교육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바람직한 상(像)에 기초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체성을 지닌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며 태도이다.

### 3. 학생의 성장과 관련하여-인지적·정의적 능력으로서의 독서 체험 중시

국어교육은 교육 일반이 공통적으로 목표하는 일반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국어교육만의 특수성을 지닌다. 국어교육의 대상, 즉 모어로서의 국어에는 특별한 애정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의 내용 기술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국어에 대한 사랑’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술 태도는 영역을 불문하고 국어교육 전반에 가정되고 또 명시화 되어 있으며, 전통 문화로서의 우리 언어와 우리말로 표현된 문학 작품에 대한 ‘가치’ 문제를 교육에서 다루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고력만이 아니라, 정서, 태도, 가치의 내면화와 같은 정의적인 영역이 국어교육의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국어교육은 언어 텍스트(기호)에 대한 이해 활동과 사고한 것을 언어적으로 생산하는 표현 활동을 포함하여, 비판적으로 읽기/듣기를 통해 창의적으로 말하기/쓰기 과정을 수행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국어능력은 단순히 기능 학습에 의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지적·정서적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향상된다. 즉 정서가 풍부해지고 내면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형성될수록 언어와 문학 세계에 대한 이해는 깊고 풍부해지며, 비판적이고 창조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렇듯 정서 및 가치관의 형성이 국어능력의 발달에 중요하며,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교육내용으로 명시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어교육 현장은 학문의 단편적 지식과 언어 기능에 대한 교수·학습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관 및 정서의 발달과 같은 정의적인 영역의 교육은 등한시된 감이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는 가시적이고 분절적인 형태의 교육 내용으로 제시될 수 없으며, 설령 학교 교육에서 강조된다 하더라도 일시에 혹은 단계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다루지 않거나 강조되지 않는 학습 내용으로서의 정서 및 가치관 등은 그 가치와 중요성이 평가 절하되기 쉽고, 때로는 학교 교육에서 배제되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국어교육에서 이러한 정의적인 영역의 바람직한 발달을 유도할 수 있는 태도 및 습관의 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정서 및 가치관은 인지적인 학습의 효과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언어와 문학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정서나 가치관이 확립되기도 한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의 언어와 문학 작품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이해는 태도 및 습관을 형성하고, 나아가 정서와 가치관의 바람직한 성숙을 유도한다.

따라서 이 측정 방안은 인지적 영역 뿐 아니라, 정서 및 가치관의 형성과 관련된 정의적 영역의 발달을 평가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독서 경험을 중시한다. 이는 언어와 문학 작품의 독서를 통해 국어에 대한 올바른 태도 및 습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평가 제재로서 고전의 내용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인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독서를 생활화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장기적으로 입시 위주의 파행적인 학교 현장의 관행을 바로잡고, 가까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언어와 문학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을 생활 속에서 친근하게 대하고, 자연스럽게 인용하며, 그 속에 담긴 삶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습관을 지니게 할 것이다.

#### 4. 학교의 국어교육과 관련하여-체계적·창의적 사고를 통한 개성의 신장

국어능력의 평가에는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평가 요소로서의 이해력과 표현력은 인간의 사고 과정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로서 분절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운 난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평가 내용은 현행 교육과정의 교육 수준과 내용을 포괄하여, 각급 학교의 다양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도, 기존의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며, 다양

한 평가 방법의 개발을 통해 평가 체제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여, 국어능력 평가에 대한 폭넓은 이론적 준거를 제시함으로써 또 다른 의의를 지닐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평가 방법의 활용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국어 능력에 대한 평가는 기존의 평가 관행을 극복한 새로운 시험 형식을 시도한다. 이는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구태의연한 시험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함으로써, 교육이 추구하는 본질에 보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평가 형식에서는 여건과 운영 능력상 측정할 수 없었던 학생들의 잠재된 국어 능력의 발휘를 폭넓고 자유로운 형태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총체적인 국어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내용에 있어 각 학문 내용이 지니는 분과적인 영역 구분을 지양하고, 방법에 있어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라는 언어 활동을 통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총체적인 국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평가의 목적인 학업 성취도 달성 여부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게 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교과서에 얽매인 학교 교육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충분히 발휘될 수 없었던 개별 학습자들의 국어 능력을 재발견하게 하며, 이를 점진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넷째, 국어 능력에 대한 입체적 평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어와 문학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국어를 소중히 여기며, 민족의 언어인 국어를 발달시키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문학작품 감상을 통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며, 풍부한 상상력을 길러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평가 방법은 경연(contest)이라기보다는 자유로운 시험(presentation)의 장(場)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 II. 국어 능력 측정의 목적

국어 능력 측정은 국어 교육을 통해 길러진 국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평가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 1. 활동 중심의 국어능력 총체적 향상 촉진

교육은 앞선 세대의 지혜를 전수해 주는 것 못지 않게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까닭에 교육 활동은 끊임없는 반성과 혁신이 필요하다. 과거의 내용을 과거의 방식으로 전하는 데 그쳐서는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이제까지의 발전 방향이 어떠했으며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여야 한다.

국어교육 역시 현실의 변화에 부응하여 내실있게 변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각 개인의 의사소통 양상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또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언어 정보들을 수용하고 처리하며 생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아울러 통신과 교통, 그리고 컴퓨터의 발달이 이룩한 세계화의 물결은 역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주체적인 민족 정체성의 확립과 민족 문화 발전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국어교육의 자기 반성과 혁신의 노력은 매우 절실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국어교육은 의사소통으로서의 언어 사용과 도구로서의 언어 사용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앞으로도 여전히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국어교육은 필요할 것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현실의 변화는 기존의 국

어교육에 대해 언어관,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고 작용과의 관련성, 문화로서의 언어 활동 등에 대한 인식과 그에 바탕한 변화는 매우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국어 능력 측정은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이상태와 현실적 기능태를 모두 고려하여 그러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선 종합적인 ‘국어 능력’ 개념을 발전시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 활동이 각각 별개의 활동인 것처럼 인식되는 폐단을 바로잡고자 한다. 또 다양한 독서 목록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바람직한 독서 문화를 이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민족의 바람직한 언어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힘, 즉 모국어 화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이나 능력 함양과 더불어 능동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획일적인 어느 한 방향으로 정해지는 것 또한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며,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 그리고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는 발전적인 국어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 2. 국어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쇄신 유도

이제까지의 교육이 파행을 거듭한 원인을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의 전 과정이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의 원인이 그러한 까닭에 많은 논자들이 “평가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생각해 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기존의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평가만 제대로 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은 본말이 전도된 또 하나의 지나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어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종합적이고 실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면 평가의 방법을 새로이 개발하고 내용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6차 교육 과정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경우, 하나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그에 동원되는 원리적, 방법적 지식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그러한 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구태의연한 교수-학습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 학습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의 개발이 미비했다는 점 또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교수-학습은 시작과 끝 모두가 제 모습을 갖추기 어려운 것이다.

종합적인 국어 능력의 개념을 확립함으로써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내용 영역이 각자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식되도록 할 것이며, 동시에 그에 맞는 평가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국어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국어 능력 측정의 일차적인 목적은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개발하여 검증하는 일이다.

### 3.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국어활동의 생활화 고취

국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인에게 국어교육은 체계가 없는 잡다한 언어활동이 될 수도 있고, 전통적인 모범 예문의 반복 학습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는 독본 위주, 강독 위주의 반성 없는 교수-학습 방식과 정해진 틀에 맞추어 출제하는 객관식 시험이 낳은 부산물로 진단된다. 따라서 국어 능력 측정은 이처럼 틀에 박힌 국어관에서 벗어나 국어의 본질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둘 필요가 있다.

국어교육의 그러한 본질은 이해와 표현의 모든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심화함으로써 개인적 창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서 성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어의 본질과 학습자의 성장이라는 교육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당연한 것이다.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인 언어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르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언어활동을 수행하는 능력과 남다른 개성의 세계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견해를 지니는 정도의 측정에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이론적 연구와 모색이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는 일이겠으나, 이것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채 진행되어서는 사상누각에 그칠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한 일이다. 국어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국어 능력의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작업 또한 지나치게 실험적이거나 현실을 무시한 이상적인 형태라면 큰 의의를 갖기 어렵다.

그러므로 현행 6차 교육과정과 곧 시행될 제7차 교육과정, 그리고 지역과 학교에 따라 다양한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일회성 평가가 아니라 현장 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국어 능력 측정 자체에 대한 평가와 연구를 수행하여 피드백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독서와 사고의 태도 함양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히 청소년기의 독서 체험은 국어 능력의 발달, 개인의 지적 성장, 문화 능력의 함양, 주체적 판단 능력의 확보 등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이미 학계에서 널리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국어 능력 측정은 학생들의 독서 체험의 폭과 깊이를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독서 목록을 제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독서를 강조하는 방법도 구상할 수 있다. 또한 시험의 여러 과정에서 독서 체험의 결과가 반영되도록 장치를 함으로써 그 성과를 측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 개인의 지적·정서적 성장을 도움은 물론, 학교 전체 나아가 사회 전반에 독서의 필요성과 의의를 자각케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람직하다. 학교는 사회와 유리된 별개의 기구가

아니라 학교의 체험이 곧 사회생활의 방법으로 연장되는 것이 교육의 이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개인의 사고나 판단 또는 결정보다 메스컴의 정보와 판단에 의해 의견이 형성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사회에서 자신의 체험과 가치관에 근거한 주체적 판단, 그리고 그러한 판단에 이를 수 있는 정보의 획득은 독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Ⅲ. 국어 능력 측정의 방침

#### 1. 부문 : 초등학생부, 중학생부, 고등학생부로 구분

기존의 국어 능력 측정은 중·고등학생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 그러나 국어교육의 초기 단계부터 바람직한 교육·학습 방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초등학생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다.

대학도 이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대학은 학문의 분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일단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보류한다. 그러나 창의력과 주체성이라는 국어능력의 심화와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별도로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주요 평가 내용은 학교급별로 차별화하여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부합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2. 영역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

인간의 언어 생활은 문자언어뿐만 아니라 구두언어로도 이루어지며, 언어생활의 실상에서는 구두언어인 말하기, 듣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국어 능력 측정은 말하기, 듣기까지 평가

영역을 확대하여 국어 능력의 제국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측정 영역은 언어활동의 양태에 따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하되 그 대상이 되는 자료와 내용은 언어와 문학으로 한다. 자료로서의 언어는 비문학 텍스트를 가리키며, 내용으로서의 언어는 언어 지식을 가리킨다.

다만, 평가 영역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으로 하되 입체적인 국어능력의 측정을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통합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과목의 편성 및 시간 배정은 매해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평가 중점

종합적 사고 능력을 주요 평가 사항으로 삼는다. 국어 생활에서 정확성이나 논리성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정서적 반응력이나 심미적 차원의 능력이며, 삶의 방식과 의미 작용으로서의 문화적 체득과 주체적 반응으로서의 문화적 분석 능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를 두루 균형 있게 평가 사항으로 부각시켜, 국어능력을 이루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그 내용을 생활국어 40%, 문학 60%로 구성한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어의 주체적이고 창조적 수용과 계승을 지향하도록 한다.

### 4. 출제 방식

출제 형태는 작문을 포함하여 인터뷰, 토론, 발표 등 다양할 수 있으며 초·중학교부의 경우 단답형의 문제도 필요에 따라서는 출제가 가능하다. 또한 읽고 말하기, 말하고 쓰기, 듣고 말하기, 듣고 쓰기, 읽고 쓰기, 읽고 말하고 쓰기, 듣고 말하고 쓰기, 쓰고 말하기 등 국어 활동의 실상에 맞게

영역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출제한다.

또한 문제의 형식과 내용이 고정될 경우 타성에 빠질뿐더러 이를 위한 별도의 학습을 하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고, 또 교육적 효과도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매년 새로운 형식과 영역 편성으로 문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 5. 독서 목록 사전 예고

문학·사회·과학·철학·예술 등의 폭넓은 분야에 걸친 고전 자료와 시사적인 성격의 언어 텍스트를 자료로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필독 도서 목록을 미리 고시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측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 6. 학교 교육과의 관계

현행 교육과정 및 학교 교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어 능력 측정의 결과가 장기적으로는 현장 교육의 개선과 국어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에 기여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도 교수-학습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모범적 성격을 갖도록 한다.

## IV. 국어 능력 측정의 방법

### 1. 출제 방향

측정 방침인 총체적 국어능력 평가를 위해서는 국어 활동 영역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영역의 능력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만 학교 급별에 따라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도록 영역의 비중이나 성격을 달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자료는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접하는 매체 언어 등의 생활언어와 문학 작품을 두루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문학을 중심으로 국어 문화에 대한 친숙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측정하는 것은 국어교육의 본질에 비추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문제의 내용은 단순한 이해 기능을 넘어서서 분석력, 비판력, 창의력, 문제 발견 능력 등 확산적 사고의 평가에 중점을 두어 출제하는 것이 요구된다.

## 2. 시험 형식

지금까지의 국어교육을 좌우하는 것은 객관식 시험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실제로 객관식 시험은 출제 기술상 단편적인 능력의 측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도 없지 않았다. 그에 따라 학교의 교수-학습도 단편적이거나 강독 위주의 주입식으로 치달아 가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병폐를 극복하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국어능력의 본질도 각 개인이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언어 텍스트를 생산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식 시험 형식은 일체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어능력의 총체적 평가와 시험의 효율성을 위하여서는 영역의 적절한 통합을 기한 과목 편성이 바람직하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기본 영역으로 설정하되, 실제 시험 과목으로는 2~3 영역을 서로 관련지어 통합하여 출제하도록 한다. (<예> 읽고 쓰기, 읽고 말하기, 말하고 듣기, 듣고 말하기, 듣고 쓰기 등)

구두언어 활동인 말하기, 듣기의 시험은 실제 구두언어 활동을 통해서 평가하며, 이를 위하여 10명 내외의 조 편성을 하여 토론을 한다든지, 시험관에 의한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다. 어떤 형식이건 간에 구두언어는 구두언어의 상태로 평가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러한 과목 편성에서 학교 급별로 시험과목의 명칭과 시험 시간은 다를 수 있으며, 학생들의 성장 발달 단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 속도 측정이 아닌 능력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간을 편성하되 대회 운영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험은 하루에 마칠 수 있도록 시간을 편성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 시간의 효율적 안배를 고려하여 시험 형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시험 자료

교육과정상의 영역으로 설정된 언어와 문학은 상기 네 영역에 자료와 내용을 포함하여 출제하되, 언어 자료로서의 가치, 문화성 등을 고려하여 일상어와 문학의 비율이 40:60이 되도록 안배한다. 생활언어 자료에는 매체언어 등 생활 주변의 언어자료를 적극 활용한다.

시험에 쓰일 독서물은 학교 급별로 5~10권 정도의 독서 목록을 적어도 10개월 전에 지정·고시한다. 실제의 시험에서는 고시된 자료와 새로운 자료를 두루 활용하여 출제한다. 이는 문화적 가치로서의 독서물이라는 관점과 생활 환경으로서의 언어생활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르게 배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 4. 출제 유형

언어활동의 네 영역 간 유기적 통합을 권장한다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유형을 예상할 수 있다.

읽기와 쓰기를 통합하는 유형: 각 학교 급별에서 읽어야 할 수준의 도서를 선정 고시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그 글을 따로 제시하지 않은 채 읽은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는 문제를 낼 수 있다. 읽을 책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채로 이런 유형의 출제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글을 짧게 잘라

출제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다양한 자료를 주어 이를 요구에 따라 소화하여 글을 쓰도록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영역 간의 유기적 통합과 예고된 자료 및 현장에서 제시된 자료의 활용을 통한 시험 형식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된다. VIR이나 음성녹음 테이프를 통해 자료를 제시하고 그에 대하여 말하거나 쓰기 등의 활동을 요구할 수 있고, 이미 예고된 자료와 대비하여 말하고 쓰는 활동을 요구할 수도 있다.

## 5. 채점 방향

채점은 개인의 총체적 국어능력의 평가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절대 평가를 중시하되 다만 측정이 지니는 상대적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상대적 우열성에 대한 평가도 참작할 수 있다.

채점위원 간의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응시자에게 동등한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두언어활동의 채점은 녹화 후 사후 채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충분한 수량의 녹화 기재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채점의 균형과 형평성을 기하고 작위적 채점의 위험을 덜기 위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 즉 10명이 채점한 뒤 최고점과 최하점을 낸 점수는 무효로 하고 나머지 8명의 점수만으로 평균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매년 출제의 의도와 형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채점 기준은 출제위원회와 채점위원회 합동 회의에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제위원이 채점위원을 겸하는 것은 출제의도의 반영, 출제의 성취도 측정, 출제기술의 향상 등을 위해 매우 유익하다.

## 6. 학교급별 출제 방향

### 1) 초등학교

#### 가. 목표

현행 교육과정인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초등학교 국어과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국어 생활을 바르게 하고, 국어를 소중히 여긴다.

가.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게 한다.

나. 국어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한다.

다. 문학 작품을 즐겨 읽고, 아름다운 정서와 풍부한 상상력을 기르게 한다.

국어 능력 측정은 이러한 목표 및 교육과정과 연관성을 가지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국어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국어능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언어를 통한 인지적, 정의적 사고 능력을 포괄하며, 나아가 능동적으로 국어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태도를 포괄하고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국어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가 국어능력의 핵심 요소가 된다. 국어 능력 측정은 그러한 문제 발견과 문제해결 능력 및 태도의 평가에 목표를 두되, 국어활동의 구체적 형태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적절하게 통합된 실제 언어생활의 모습을 통해 사고와 태도의 질과 양을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국어를 통한 사고능력을 심화하며 독서를 생활화함으로써 국어 문화 발전에 대한 능동적 태도를 갖추게 할 것이다.

#### 나. 평가 요소

국어능력을 평가하는 요소로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 문화성을 고려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어 능력 측정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루 설정하되 초등학교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정확성과 적절성에 비중을 더 둔다.

1) 정확성

- 어휘력: 어법에 맞는 어휘를 사용하고 나아가 풍부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 문법 능력: 문장의 문법적 정확성을 판단하고 표현하는 능력.
- 통사 구성 능력: 문장과 문장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

2) 적절성

- 담화 능력: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언어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

3) 창의성

- 문제 해결 능력: 언어를 통해 주어진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창조적 언어 사용 능력: 언어의 규범성을 넘어서 새롭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4) 문화성

- 국어의 문화적 특징과 전통 속에서 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다. 영역별 평가 내용

1) 듣기

- 다양한 표현의 의미를 생각하며 들을 수 있다.
- 말하는 이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며 들을 수 있다.

- 상대가 사용한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하며 들을 수 있다.
- 관심있는 내용을 찾아서 듣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 2) 말하기

-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설득력 있게 자신의 주장을 전개할 수 있다.
- 문제·해결의 짜임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말할 수 있다.
- 상황에 알맞은 표현을 사용하여 말할 수 있다.
- 여러 가지 말하기 규칙을 지키며 말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 3) 읽기

- 다양한 표현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을 수 있다.
- 글을 읽고 전체의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요약할 수 있다.
- 주장하는 근거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 문제 해결 방안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 다양한 읽을거리를 스스로 찾아 읽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 4) 쓰기

-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여 내용을 전개하여 글을 쓸 수 있다.
- 문제·해결의 짜임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글을 쓸 수 있다.
- 표현의 효과를 고려하여 글을 쓸 수 있다.
-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로 글을 쓸 수 있다.

## 라. 문제 예시(例示)

### 1) 듣기/말하기

※ 다음 학생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

명희: 흰나리꽃이 뭔지 아니? 백합을 뜻하는 순 우리말이야.

경수: 그런데 왜 우리들은 보통 때 이런 순 우리말을 쓰지 않지? 우리들의 언어 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진주: 사람들이 백합을 흰나리꽃이라 해 봐야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명희: 간판이나 상표 등에 영어나 일본어, 그리고 국적도 모르는 외국어를 너무 쓰는 것도 큰 문제야. 세종 대왕이 이곳에 다시 오신다면 통탄 하실거야.

미연: 우리말이 사라진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외국어가 많아지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 왜냐 하면 어차피 순 우리말이건 외국어이건 우리 사회에서 널리 쓰이면 모두에게 익숙해질 테고, 그렇게 되면 외국어라도 우리말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테니까.

정수: 그래, 외국어를 잘 하려면 자주 사용해야 해. 그리고 어려서부터 외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재욱: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되려면 우리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외국어를 자국어화하는 노력을 해야 해. 그것이 요즘 말하는 세계화가 아닐까?

경수: 세계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것을 보다 잘 알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해.

---

<물음 1> 이 토론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물음 2> 두 사람은 세계화에 대해 의견이 어떻게 다른가요?

<물음 3> 학생은 널리 알려진 백합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하나요 아니면 순우리말인 흰나리꽃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학생의 의견을 말하고 왜 그런가도 말해보세요.

## 2) 읽고 말하기

※ 다음 옛날 이야기를 잘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

백제에 살고 있던 유명한 석공 아사달은 불국사의 삼층 석탑을 만들기 위해 젊은 아내 아사녀를 남겨 두고 신라로 떠났습니다.

아사달은 아사녀를 그리워하면서도 오로지 탑을 만드는데 몰두하였습니다.

한편 아사녀는 삼 년을 기다렸지만, 아사달이 돌아오지 않자 신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사녀는 불국사 경내에 있는 스님의 거절로 아사달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사녀는 완성된 탑이 연못에 비칠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사녀는 탑이 완성되면 아사달을 따라 백제로 따라가겠다고 신라 처녀들의 말을 듣고, 실망한 나머지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탑이 완성되고 아사녀의 이야기를 알게 된 아사달도 아사녀의 뒤를 따라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

<물음 1> 아사녀가 연못에 몸을 던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음 2> 여러분이 만일 아사녀라면 어떤 방법으로 소식을 전했을까요? 아사녀의 입장이 되어서 써보세요.

<물음 3> 아사녀의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요?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왜 그런지 이유를 써 보세요.

### 3) 보고 쓰기

※ 다음의 그림들을 잘 보고 그 그림들의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상상하여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야기에 어울리는 제목을 지어보도록 하세요.

---

그림 1: 청어들의 회의 장면

그림 2: 청어들이 인간을 공격하는 장면

그림 3: 인간이 청어에게 반격하는 장면

---

## 2) 중학교

### 가. 목표

중학교 국어과는 초등학교 국어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기초적인 표현력과 이해력의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이다. 이를 위하여 언어적 표현과 이해의 기저가 되는 기초적인 원리 및 지식을 학습시키고, 실제적인 활동을 통하여 표현력 및 이해력을 신장시킨다. 중학생 시기는 자국어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문화적인 친숙도를 높이게 되는 단계로 설정될 수 있다. 현행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다음을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국어 생활을 바르게 하고, 국어와 민족의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게 한다.

가.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게 한다.

나. 국어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게 한다.

다. 문학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고, 작품 감상력과 상상력을 기르게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제6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상기 국어과 교육목표는 전통적으로 유지되어온 국어과 교육의 세 영역을 포괄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리고 국어 능력 측정의 대상자들은 이러한 교육 과정에 의거해서 교육을 받은 학습자들이기 때문에 국어 능력 측정 또한 이 틀을 준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어 능력 측정은 단순히 활동 결과의 측정 및 평가에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미래 지향적인 성격을 수용하여 실험과 개혁을 지향해야 한다. 국어 능력 측정의 결과는 미래의 국어과 교육을 설계하는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인정한다면 본 국어 능력 측정은 이 틀을 최대한 존중하되, 그 틀을 약간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 먼저, 국어와 문학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은 언어 활동의 네 국면-말하기/듣기/읽기/쓰기-에 흡수되면서 그 내부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국어 지식은 평가 과정에서, 문학 지식은 출제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기 네 영역 또한 언어 사용의 기술(skill)에 치우친 경향을 극복하고, 언어와 사고, 언어와 문화의 관계 속에서 설계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어 능력 측정의 평가 문항은 이러한 점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학교 국어과에서는 초등학교 국어과의 초점이라 할 수 있는 표기와 발음의 정확성이나 어휘력을 바탕으로 언어적 사고력(사고의 언어적 표현/언어를 통한 사고)을 본격적으로 국어 교육의 본령으로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언어적 사고력이란 사실적 사고력, 추리력, 논리력, 상상력, 비판력, 창의력 등으로 세분될 수 있으며, 중학생의 지적·정서적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를 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아울러 출제와 측정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부딪힌 사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는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수준으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해 내는 능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언어적 사고력은 문화라고 하는 보편적 준거에서 발동하고 작용하게 마련이므로, 국어 능력 측정은 언어와 문화의 관계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자이를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기성 언중들의 언어 질서를 체득하는 한편 자신들만의 고유한 언어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하는 것이 중학교 시기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 나. 평가 요소

##### 1) 정확성:

- 어휘력: 유의어/반의어/다의어를 변별하고 풍부한 어휘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
- 문법 능력: 문법에 어긋나지 않게 문장을 만들고 구사할 수 있는 능력
- 통사 능력: 문장과 문장을 논리에 어긋나지 않게 연결할 수 있는 능력

2) 적절성:

- 담화 능력: 문맥 및 상황에 맞추어 언어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3) 창의성:

- 상상력: 허구적인 글쓰기와 읽기 능력
- 추리력: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

4) 문화성:

- 소통력: 비유어, 한자 성어, 속담, 의태어/의성어 등의 구사 능력
- 체득 능력: 일상적인 담화 맥락 속에서 문화적 고유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다. 영역별 평가 내용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기본 영역으로 설정하되, 언어 활동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측정에서 이러한 양상을 반영하여 출제·평가하도록 한다. 다만 각 영역이 본질적으로 구유해야 할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1) 말하기

- 문맥에 맞는 어휘를 표현하며 말할 수 있다.
- 속담이나 고사성어, 널리 알려진 문학 작품의 인용, 그리고 유우머를 구사하여 말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선정, 조직할 수 있다.
- 청자의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 표정이나 몸짓 등 언어 외적인 요소들을 적절히 동원할 수 있다.

2) 듣기

- 화자가 말한 바와 일치시켜 들을 수 있다.

- 화자의 의도나 목적을 바르게 파악하며 들을 수 있다.
- 화자가 말한 내용을 내·외적 준거에 비추어 판단하며 들을 수 있다.
- 화자가 말한 내용에 적절하고 타당하게 반응하며 들을 수 있다.
- 청자로서의 올바른 태도와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

### 3) 읽기

- 문맥에 맞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글의 내용을 창조적,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 글의 내용으로부터 자신에게 유의미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 글의 내용이 지닌 가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 4) 쓰기

- 문법에 맞게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
- 문제 발견, 해결 과정을 가치있게 실현할 수 있다.
- 각 양식의 내적 질서를 준수하여 글을 쓸 수 있다.
- 예상되는 독자의 조건을 고려할 수 있다.

라. 문제의 예시(例示)

#### 1) 듣고 말하기

※ 이제 여러분은 옛날 이야기 한 편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말하세요.

---

어느 날 장씨 부자가 다른 동네에 살고 있는 이씨 부자집을 방문했습니다. 둘은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장씨 부자가 이씨 부자에게 말

했어요.

“황금빛 털을 가진 양을 당신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의 양들 중 한 마리가 황금빛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아주 착한 목동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당신께 그 목동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 목동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음을 제가 입증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목동이 거짓말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기를 합시다. 만일 저의 목동이 거짓말을 하면, 제 토지의 절반을 당신께 주겠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반대로 당신 토지의 절반을 저에게 주시는 조건으로 합시다.”

“찬성입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합니다.”

그 날 밤, 장씨 부자는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목장으로 가서 그 목동을 만났어요. 목동은 상냥하게 인사하면서 말했죠.

“부자 영감님,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는 어떻게 내가 부자인 것을 아느냐?”

“영감님의 태도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네가 황금빛 털을 가진 양을 나에게 준다면, 나는 너에게 많은 돈과 좋은 말을 주겠다.”

“안 됩니다. 그렇게는 못 합니다.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그 양은 드릴 수 없습니다. 주인님의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장씨 부자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목동의 마음을 돌려 보려 했으나 끝내 실패하고, 낙담한 채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를 알게 된 장씨 부자의 외동딸은 아버지에게

“아버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제가 목동을 찾아가서 한번 말해 보겠어요.”

하고는 아름다운 꽃다발과 술을 들고 목동을 찾아갔습니다.

부자의 딸은 달콤한 말로 목동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으나 결국 목동은 깨끗하게 유혹을 참아냈습니다. 그래도 처녀가 계속 간청을 하자, 목동은 자기와 결혼을 해 주면 그 황금빛 양을 주겠다고 했어요. 처녀는 목동의 제의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양의 가죽을 벗겨 주세요. 나는 단지 그 가죽만 필요하니까요.”

그러자 목동은 양의 가죽을 벗겨 내어 그녀에게 건네 주었고, 처녀는 기쁨에 넘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목동은 간밤의 일을 후회하며 매우 난감해 했겠지요?

목동은 풀이 죽은 채 주인댁을 향하여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막대기를 땅에 꽂고 거기에서 자기가 쓰던 모자를 걸어놓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어제 황금빛 양이 우물에서 물을 먹다가 그만 빠져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해 놓고서는 다시 주인의 목소리로 자기가 대답합니다.

“거기엔 양이 빠져 죽을 만큼 물이 깊지도 않은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번에는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님, 어젯밤에 황금빛 양이 이리에게 물려가 버렸습니다.”

다시 주인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

목동은 더 이상 안 되겠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주인댁을 향해 걸었지요. 그러다가 무릎을 탁 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인댁에 도착해 보니 거기에는 이미 장씨 부녀가 주인과 함께 목동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 셋은 과연 목동이 거짓말을 하는지 지켜 볼 셈이었지요.

주인이 목동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목장에는 별일 없겠지?”

“네, 제가 황금빛 양을 아름다운 검은 양으로 바꾼 것 말고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좋아, 그러면 그 검은 양을 이리로 데려와 봐라.”

했더니, 목동은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검은 양은 바로 영감님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까요.”

---

<물음 1> 이야기 도중 황금빛 양이 이리에게 물려가 버렸다는 목동의 말에 대해 주인이 했을 법한 말을 짧게 쓰시오.(20단어 내외)

<물음 2> 이 이야기의 두 부자 중 어느 편이 이겼다고 생각하는지 서로 토론하시오

## 2) 읽고 쓰기

※ 여러분이 이미 읽은 <별주부전>에서 토끼가 행한 행위를 평가하는 글을 쓰시오

### <유의 사항>

- 토끼를 인간으로 간주하여 평가할 것.
- 토끼의 모든 행위를 평가의 대상으로 할 것.
-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0자 내외(±50자 허용)로 할 것.

## 3) 고등학교

### 가. 목표

국어 능력 측정은 현행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바람직한 국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고등학교 국어 능력 측정의 목표도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제6, 7차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어과’의 목표는 언어 본질의 이해, 국어 사용의 다양성과 총체성의 이해, 국어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사용, 국어 문화의 바른 이해, 국어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기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어능력은 이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수준의 국어능력 평가는 단순한 기능 차원보다는 고차원적인 국어 능력을 평가토록 한다.

즉, 고등학교 국어 능력 측정의 전반적인 방향은 정확성·효율성을 바탕으로 비판력·창의력·문제발견 및 해결능력 등 확산적 사고력 측정을 지향하도록 한다. 또한 단편적인 지식이나 기능보다는 해석의 다양성, 대안의 모색, 의미의 확대 재생산 등 고등사고력 측정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나. 평가 요소

국어능력 평가의 핵심은 ‘국어’와 ‘능력’에 있다. 즉 이들의 성격에 따라 평가의 범주 역시 결정될 것이다.

먼저, ‘국어’는 자아 실현으로서의 국어, 사회성으로서의 국어, 도구로서의 국어, 소통으로서의 국어, 문화로서의 국어, 세계관으로서의 국어 등 다면적인 성격을 갖는다. 한편, ‘능력’이란 선천적이고 정태적인 차원에 결부된 것이 아니고 지식·사고력·태도·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활동으로서의 국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국어과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지식

- 국어 활동에 필요한 지식.
- 국어 문법과 문학에 대한 지식.

### 2) 사고력

- 어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맥적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능력.
- 표현된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과 사실에 맞게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
- 제시된 정보를 근거로 하여 숨겨진 내용이나 정보를 추리해 내는 능력.
- 제시된 행위, 사실, 인물 등의 가치, 정당성, 타당성, 효용성 등을 비판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능동적으로 감상하는 능력.
- 언어 활동의 과정이 논리적 규칙에 맞도록 이루어 내는 능력.

### 3) 정서, 태도

- 텍스트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 능력.
- 문학 작품의 내면화와 독서하는 습관.

## 다. 영역별 평가 내용

기본 영역은 초·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설정했던 내용을 토대로 복합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 내용이 되도록 한다. 평가 항목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되 편의상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1) 말하기

- 세계에 대한 앎을 상황에 맞게 말할 수 있다.
- 세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말할 수 있다.
- 세계에 대한 창의적인 사고를 표현할 수 있다.
- 텍스트를 읽은 후 비판적이며 창의적으로 말할 수 있다.
- 자신의 태도나 가치관을 사리와 정황에 맞게 말할 수 있다.
- 매체 언어를 보거나 듣고 비판적으로 말할 수 있다.

### 2) 듣기

- 화자의 사고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 화자의 말을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다.
- 화자의 말을 듣고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 화자의 말에 대해 문제를 발견하면서 들을 수 있고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 매체를 통한 언어를 보거나 듣고 비판적으로 말할 수 있다.

### 3) 읽기

- 비판적이며 창조적인 읽기를 할 수 있다.
-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다.
- 텍스트의 사고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 작가(저자, 화자)의 삶의 태도(세계관)를 추리할 수 있다.

- 텍스트의 세계(인물, 사건 등)에 대해 윤리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다.
- 매체 언어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다.
- 텍스트를 문화적 맥락과 연결시킬 수 있다.

#### 4) 쓰기

- 자신의 생각을 넓고 깊이 있게 쓸 수 있다.
- 자신의 독서 체험을 쓰기에 잘 반영할 수 있다.
- 글쓰기의 자료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글쓰기로 수행할 수 있다.
- 상황과 수신자의 조건을 고려해서 쓸 수 있다.
- 쓰기의 규범성과 창의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 라. 문제의 예시(例示)

##### 1) 읽고 쓰기

※ 다음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

일반 성인이 노인들에 대해서 실제로 보이는 태도의 특징은 이중적인 것 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노인들을 존중하도록 오랜 세월 동안 사회에 의해 강요되어 온 공식적인 도덕률에 어느 정도까지는 수긍을 한다. 그러나 노인들을 자신보다 못한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고 또, 그들이 유체적, 정신적으로 쇠락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납득시킴으로써 이득을 본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로 하여금 이 노인네가 여러 가지 일의 주도권을 자신에게 양보하고, 충고를 그만두고, 그저 그의 결합들과 서투름을 느끼게 하는 데 열중하게 된다. (...중략...)

오늘날 일반 성인들은 노인에 대하여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노인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아 착취를 하는 것이다. 특

히 미국의 경우가 그러한데, 프랑스에서도 노인 전문 클리닉, 휴양원, 실버타운 등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곳에서는 재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편안함을 보살핌에 대한 대가로 가능한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끔 한다.

- 시몬 드 보브와르, <노인>

---

<물음 1> 이 글을 500자 정도로 요약하고 핵심어 다섯 개를 제시하라.

<물음 2> 지문에서 밑줄친 단어와 표현의 의미를 설명하라.

<물음 3>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이 쓸모 없는 존재라고 평가하는 필자의 견해에 공감하는가? 이에 대해 일상 생활과 문헌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들어가며 자신의 관점을 개진하라.

## 2) 읽고 말하고 듣기

※ 여러분이 이미 읽은 채만식의 『태평천하』에 나오는 윤직원의 삶이 오늘날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팀원들과 토론하라.

## 3) 보고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

※ 잠시 후 상영되는 애니메이션 작품을 본 뒤 다음 물음에 답하라.

포카혼타스 : 애니메이션

원작 : 존 데이비스

감독 : 에릭 골드버그

<물음> 다음 자료를 읽고 필자의 생각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기술하라. 단, 반드시 애니메이션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 구체적인 장면, 상황과 연관시키라.

---

「포카혼타스」는 미국의 월트 디즈니사가 거의 매년 한 편씩 내놓아 대단

히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만화영화들 가운데 가장 최신작이다. 예컨대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알라딘」, 「라이온 킹」 등은 디즈니 사를 돈방석에 올려놓은 최근의 애니메이션 작품들이다. 그중 앞의 세 작품은 기존의 동화를 소재로 한 것들이고, 「라이온 킹」 역시 일본의 만화영화 「레오」에서 아이디어를 빌어 왔다고 알려져 있다. (...중략...)

국내에서는, 「포카혼타스」를 통해 디즈니 사가 드디어 미국문화까지도 상업화시켜 다른 나라들에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하는 글들이 나왔다. 즉 그 동안의 애니메이션 영화들은 유럽적이어서 그래도 면죄부를 줄 수 있지만, 미국 것까지 판매하려고 하는 미국의 문화적 제국주의는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셈이 된다. 왜냐하면 「포카혼타스」가 1995년도 디즈니 사를 대표하게 된 이면에는, 미국 안의 소수인종에 대한 최근의 급증하는 관심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비록 만화영화이긴 하지만, 미국원주민 소녀가 당당하게 주요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1990년대 들어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다문화주의 운동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이다.

과연 이 영화는, 미국원주민(요즘 인디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들을 대자연을 지키는 평화스러운 미국의 원래 주인으로서, 그리고 유럽에서 온 백인정착자들을 남의 땅을 빼앗는 잔인한 무법자들로 묘사함으로써, 오히려 반제국주의적인 시각으로 미국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다. (...후략...)

-김성곤, 『문학과 영화』, 민음사, 1997.

《참고문헌》

- 교육부, 제7차 교과 교육과정(각론) 개발 지침, 1997. 5.
-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1995), 제1회 전국 중·고등학생 논술경시대회 보고서,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1996), 제2회 전국 중·고등학생 논술경시대회 보고서,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1997), 제3회 전국 중·고등학생 논술경시대회 보고서,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1998), 제4회 전국 중·고등학생 논술경시대회 보고서,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1998), 초등용 사고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 김대행(1997), 「국어과교육의 목표와 영역」, 『선청어문』 제25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_\_\_\_\_ (1997), 「21세기를 대비하는 국어과 교육의 지향과 과제」, 『21세기 국어과 교육의 지향과 수준별 교육과정』,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1996), 「국어과 교육과정 분석과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연구』, 한국교육학회 교육과정연구회.
- \_\_\_\_\_ (1995), 『국어과과학의 지평』, 서울대출판부.
- \_\_\_\_\_ (1997), 「영국의 문학교육」, 『국어교육연구』 제4집,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 \_\_\_\_\_ (1998), 「사고력을 위한 문학교육의 설계」, 『국어교육연구』 제5집,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 박영목 외(1996), 『국어교육학 원론』, 교학사.
- 송준만(1981), 『정신문화와 두뇌』, 교문사.
- 신헌재 외(1996), 『열린 교육을 위한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박이정.
- 전성연 외(1995),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방안 연구』, 교육과정 개선 연구회.
- 최현섭 외(1996),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 허경철(1996), 「수준별 교육과정의 필요와 개발 방향」, 『교육과정 연구』, 제14권 제2호.

- AEB(1995), *1997 Syllabuses : English*.
- Andrew Goodwyn(1992), *English Teaching and Media Education*, Open University Press.
- Andrew Stables(1992), *An Approach to English*, Cassell.
- Bob Allen(1991), *A School Perspective on Shakespeare Teaching*, Lesley Aers & Nigel Wheale ed., Shakespeare in the Changing Curriculum, Routledge.
- Brian Cox(1995), *Cox on Cox: An English Curriculum for the 1990's*, Hodders & Stoughton.
- Brian Cox(1995), *Cox on The Battle for English Curriculum*, Hodders & Stoughton.
- Department for Education(1995), *English in the National Curriculum: England and Wales*, HMSO.
- Graeme Turner(1992), *British Cultural Studies: An Introduction*(2nd ed.), Routledge.
- Ian Barr & Chris Walton(1995), *A-level Question and Answers*, Letts Educational.
- Ian Barr & Chris Walton(1995), *A-level Questions and Answers: English*.
- Ian Barr & Chris Walton(1996), *GCSE Questions and Answers*, Letts Educational.
- John Lisle & John Cahdfield(1997), *Key Stage 3 National Tests*, Letts Educational.
- Maurice Gilmour(1997), *Shakespeare for All in Primary Schools*, Cassell.
- Norman Fairclough(1994), *Critical Discourse Analysis*, Longman, 1995. Cristopher Nash ed., Narrative in Culture, Routledge.
-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1996), *The Teaching of Reading in 45 Inner London Primary Schools*.
- Paul du Gay, et als(1997), *Doing Cultural Studies: The Story of the Sony Walkman*, Sage.
- Rosemary Coxon(1993), *A-level English*, Letts.
- Rosemary Coxon(1995), *Letts Study Guide: A-level English*, Letts Educational.
- SCAA(1997), *The Parent's Guide to National Tests: English Key Stage 2*.

- School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1997), *Report on the 1996 National Curriculum Assessments for 7-year-olds: Standard at Key Stage 1.*
- Stuart Sillars(1997), *Longman Study Guides: A-level English.*
- Susan Leach(1992), *Shakespeare in the Classroom*, Open University Press.
- The Scottish Office Education Department(1991), *Curriculum and Assessment in Scotland National Guidelines: English Language 5-14.*
- The Scottish Office Education Department(1991), *Curriculum and Assessment in Scotland National Guidelines: English Language 5-14.*
- The Sunday Times(1997), *English Examplan*, Times Newspapers Ltd..
- Cowan, Elizabeth(1983), *Writing*, Scott, Foresman & Company.
- Dacey, John S.(1989), *Fundamentals of Creative Thinking*, Lexington Books.
- Lipman, M & Sharp, A. M.(1986), *Growing up with Philosophy*, 여훈근 외 옮김, 『세 살 철학 여든까지』, 정음사.